

News

고승범 "만기연장 추가 연장…부채문제도 관심 가질 시점"

연합인포맥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한 차례 더 연장하겠다고 밝혀… 6개월 연장하는 방안 추진키로… 이번주 확정해 발표하고 세부 계획은 내달 중하순경 예정 단순 연장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미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대책을 만들 것이라 언급

"시장안착의 열쇠" 고신용자 대출영업 강화하는 토스뱅크

파이낸셜뉴스

토스뱅크, 올해 가계대출 재개하면서 고신용자 대출 비중 늘려… 지난 1월 토스뱅크 신용대출 중 4% 미만 금리 비중은 42.6%

일반 시중은행과 큰 차이 없어… 카카오뱅크는 4% 미만 대출이 없고 케이뱅크는 12.9%… 사측은 사실상 이제서야 정상영업을 하는 것이기에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것이라 설명

'스위프트' 배제 은행 영향은… 러시아 송금 제한 '초읽기' 시작

조선비즈

정부, EU와 G7의 러시아 은행들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차단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동참하겠다는 의사 밝혀… 현지 은행들 리스트 확정돼 실제 중단까지 이어지려면 3개월 소요 예상 다만 스위프트 퇴출 본격 시행 전인 현재에도, 국내 주요 시중은행 사이에선 일부 러시아 은행 및 기업과의 거래 제한 움직임 감지

우리금융캐피탈, 2천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이데일리

우리금융캐피탈, 2,000억원 대 신종자본증권 발행… 이로써 자기자본 1조 4,000억원 대로 증가… 레버리지비율이 1배 이상 하락

이번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비은행부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금융지주가 인수… 그룹 내 다른 자회사와 시너지 극대화 및 성장 가속화 계획

삼성생명 GA, 라이나금융 설계사 영입 무산되나

보험매일

삼성생명 자회사 GA의 라이나금융서비스 설계사 영입 무산 위기… 계약금 책정 문제, 상품 판매 제한 조건 등으로 양측 의견 충돌하며 무산 가능성 높아져…

업계에서는 자본금 부족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 이번 계약 성사되지 않을 경우 비전속 전환 더딜 것으로 예상

'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 공유하는 보험사들, 이유는?

머니S

보험개발원, 손보업계, 금융감독원, 마일리지 특약 관련 회의 열고 올해 7월 이전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들의 주행거리, 사고이력 등을 한 곳에서 보는 시스템 갖추기로…

손보사들은 손해율 낮은 우량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 주는 방안을 공격적으로 추진 중… 시스템 구축 시 마일리지 특약의 도덕적 해이도 일정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

새 먹거리 찾아라… 특화된 시장 발굴하는 중소형 증권사들

국민일보

중소형 증권사들,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그간 다루지 않은 분야에 진입해 저변 넓히거나 유망 투자 상품 발굴 시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젊은 투자자들 붙잡는 시도 중 유진투자증권, 중소형사 최초 간편모바일트레이딩 시스템 출시 후 공격적 마케팅 중… 하나금융투자, 카카오뱅크 제휴 바탕으로 빅테크 플랫폼 협업 가속화 예정

하이투자증권, 2000억원 규모 자본확충 실시

헤럴드경제

하이투자증권, 25일 기준 이사회 열고 2,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 증권 발행해 자본 확충하기로… 2020년 1월 이후 2년만에 자기자본 비즈니스 경쟁에 뛰어드는 모습 이로써 자기자본 규모는 1조 3,000억원대로 증가… 성장동력 확보 및 우발채무 비율 축소, NCR 등 재무비율 개선을 통한 장기신용등급 상향에도 긍정적 기여 기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